

퇴직연금제도 도입의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의 재무요인을 중심으로

정영훈¹, 김형수^{2*}, 안은주³

¹호서대학교 대학원 미래산업융복합학과 박사과정, ²호서대학교 일반 및 벤처대학원 교수

³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A Study on Affecting Intention to Introduce Retirement Pension System : Focusing on Financial Factor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Yeong-hoon Jeong¹, Hyoung-soo Kim^{2*}, Eun-ju Ahn³

¹Ph.D course,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²Professor, Graduate School of General and Venture, Hoseo University

³Ph.D cours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 약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중 하나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되어있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은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의 도입비율은 매우 낮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퇴직연금 도입 유도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무적속성중 매출액순이익률은 양(+)의 방향, 자기자본비율은 음(-)의 방향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소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순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퇴직연금 도입유도 정책 실시가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인구고령화, 노후소득보장, 퇴직연금, 중소기업, 재무분석,

Abstract The retirement pension is one of the security systems for retirement income. In Korea, since 2016, companies with 300 or more employees are obligated to introduce retirement pensions, so the rate of introduction of retirement pensions by large companies is high, but the rate of introduc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ME) is very low.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government's policy establishment to introduction of a retirement pension plan by looking at what financial attributes affect the intention to introduction of retirement pension pl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mong the financial attributes, Return on Sales in the positive (+) direction and Equity Capital Ratio in the negative (-) direction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introduce a SME retirement pension. Accordingly, the government policy to induce the introduc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for SMEs needs to be implemented in stages with priority to SMEs with large Return on Sales and Equity Capital Ratio.

Key Words : Population aging, Old-age income security, Retirement pensi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ME), Financial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Hyoung-soo Kim(kimhs@hoseo.edu)

Received January 27,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March 1,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1. 서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지 15년이 흘렀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이다. 이는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사내유보충당금과 사외예치 적립금의 손급산입으로 비용처리 되어 법인세 감면효과 등이 있다[1]. 즉, 근로자에게 퇴직 후 노후준비 재원 마련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근로복지를 통해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정부에게는 개인의 자발적 노후소득 보장으로 인해 재정 부담을 줄일 여지를 마련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노후소득보장체계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이하 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7].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대표(노조원의 과반수 또는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2].

정부는 2005년에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을 제정하고 퇴직연금 도입 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37만 8천개의 사업장(27.3%)과 561만 명(51.3%)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적립금은 190조원으로 성장하였다[3]. 그러나 종업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비율은 17.7%에 그치고 있다 [3]. 이로 인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직 중 임금 및 복지의 차이뿐 아니라, 퇴직이후 노후소득의 격차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3].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확대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및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및 이익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효과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소기업의 도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

업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의 재무 요인, 정치비용 및 계약변수 요인, 노동관계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영향 요인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실증연구의 부족으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기업의 재산과 영업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도입 영향요인 연구의 중요사항이나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재무 요인과 퇴직연금제도 도입의사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300개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재무정보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의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다수 선행연구는 사업체패널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는 간접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적 속성을 토대로 퇴직연금 도입 영향요인을 연구한 반정호(2005) 및 주현(2018)의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 조사 데이터에서 추출한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1,2].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재무 요인과 퇴직연금제도 도입의사의 관계를 실증분석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에 영향을 주는 재무요인을 규명하여 퇴직연금 도입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2. 선행연구

2.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및 도입 현황

한국은 저 출산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인구절벽 및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급진적이다.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며, 그 중 하나인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4].

국내의 인구증가율(전년대비 인구 증가비율)은 1997년에 1%대 미만으로 진입한 후, 2010년 0.5%, 2019년 0.2%를 기록하고 있다. 2030년에는 -0.03%, 2050년에는 -

0.66%, 2060년에는 -1.2%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어 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5]. 또한, 인구자연증가율(출생률-사망률)은 2018년에 1%대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마이너스 상태를 기록함에 따라 인구의 자연감소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6].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섬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14.2%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5]. 특히 25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 고령사회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바, 국내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빠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개인과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개인과 국가 차원의 준비가 중요하다. 그러나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국민의 노후대비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7]. 2017년 현재 국민의 50% 이상이 노후준비에 미흡하고, 연금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치 58.7%에 못 미치는 39.3%에 머무르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45.7%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알 수 있다[3].

국민의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Table 1은 국내 소후소득 보장체계를 보여 주고 있다.

Table 1. Multi-layered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3F	Personal Pension
2F	Retirement Pension
1F	National Pension
0F	Public Assistance

0층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공공부조 성격의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는 빈곤층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복지 보장제도에 해당된다[8]. 1층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로, 연금제정의 한계로 인해 1988년 도입당시의 소득 대체율 70%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8년에는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9]. 또한 연금수령 연령도 당초 60세에서 점차 늦춰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수령하도록 변경됨에 따라[9],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

고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체계가 3층인 개인연금제도이다[9]. 그러나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상품으로 강제성이 없으며[10], 세제혜택이 일부 여유계층에만 집중되어,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10].

이러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1961년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연금체계가 2층인 퇴직금제도이다. 그렇지만 퇴직금제도 또한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 특성상 기업에게는 비용부담이 크다. 게다가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고, 중간정산 등의 확산으로 인해 후불임금의 성격으로 변질됨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11].

퇴직금제도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장려했으며, 2014년도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확대를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이 의무화 되어[11], 2018년 기준으로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91.4%가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미 도입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이 아직 없어, 전체 기업의 72.7%가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미도입시 벌금,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점 이외에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우려 및 관리와 절차의 복잡함,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수익률 저하)등의 사유[10]로 도입률이 낮아, 종업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 비율은 17.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재직 중 임금 및 복지의 차이가 퇴직이후 노후소득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의 종업원 수에 따른 퇴직연금 도입비율 현황은 Table 2와 같다[3].

Table 2. Introduction Rate of Retirement Pension by Employee Size

employee size	Introduction rate of retirement pension
more than 300 people	91.4%
100-299 people	84.6%
30-99 people	75.0%
10-29 people	55.3%
less than 10 people	17.7%

2.2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영향요인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무요인, 정치비용 및 계약변수 요인, 노동관계 요인 등이 대표적이다[2]. 재무요인은 자산 및 부채 규모, 매출 및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 퇴직금제도 보다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2]. 정치비용요인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정부로부터 규제나 과도한 세금부과 등의 정치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12]. 계약요인은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동계약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2]. 노동관계요인은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중요한 노사 간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 노사관계, 임금 및 고용보장 수준, 복직후생 등 다양한 노동관계변인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 할 것이라는 것이다[2].

퇴직연금 도입 영향요인 중 재무요인은 기업의 재산과 영업 상태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기업 상황과 사업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재무요인은 퇴직연금 도입 영향요인 연구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요인이라 할 것이다. 퇴직연금 도입 관련 국내 연구는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 관련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 중요 영향요인인면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재무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요인에 한정하여 퇴직연금 도입 영향요인을 분석함을 통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확대 유도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 중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에 영향을 주는 재무요인 관련 연구가 거의 없어 기존 선행연구 자료인 대기업 중심의 퇴직연금 도입 재무요인 연구 자료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재무적 요인을 추출 하였다. 기존연구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을 통해 재무요인 중 수익성, 매출액, 총자산, 부채규모 및 영업레버리지가 큰 기업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퇴직연금 도입 재무적 속성 관련 대표적 기존연구는 Stone(1987)의 여유현금가설이다[12]. Stone(1987)은 연구를 통해 여유현금 및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퇴직금제도 보다는 매월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12]. 나영·송도영(2003)은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한 결과, 현금흐름이 우수한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더 빨리 도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13]. 주현(2018)은 당기순이익이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 Alexander, Marina, Aidai, & Andrey(2018)도 기업의 재무 요인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퇴직금제도 보다는 퇴직연금제도를 더욱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14]. 여유현금과 수익성은 엄밀하게는 다르지만 수익성 높은 기업이 여유현금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선행연구에서도 혼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익성으로 통일하고 재무제표 상 수익성을 대표하는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Picconi(2006)는 미국 기업의 1988년에서 2001년까지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상황과 퇴직연금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15]. 박원주·임두빈·전용일(2011)과 김대환·류건식(2011)은 사업체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제도 도입 실증분석을 통해 매출액이 퇴직연금 도입에 중요 요인임을 밝혔다[16,17]. 또한 반정호(2005), 주현(2018) 및 Alexander, Marina, Aidai, & Andrey(2018)는 기업의 매출액이 클수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1,2,14].

Francis(1987)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규제나 과도한 세금부과를 피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익을 감소시키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18].

그 외에도 Peterson(1995)은 영업 레버리지이론에서 전체 비용 중 감가상각비와 같은 고정영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영업레버리지)이 높은 기업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라고 주장하였다[19].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출액과 상관없는 고정비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영업현금흐름에 따라 적립금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19].

한편 부채규모가 클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선호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재무제표 상 당초 부채로 계상되었던 퇴직급여 충당금이 일부 축소(DB형)되거나 전부 감소(DC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부채규모가 큰 기업은 부채규모 축소 목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1]. Dong-xu(2017)도 비용-편익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장래의 기회비용과 위험비용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선호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20].

2.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퇴직연금은 여유현금이나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부채 규모 축소 및 이익감축을 통한 세금 감면 등의 목적을 위해 도입하고 있어 기업의 재무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재무적 요인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퇴직연금 재무적 속성 관련 선행연구 결과이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퇴직연금 관련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접조사 방식이 아닌 직접조사 방식으로 수집한 재무자료 및 재무비율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국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체 패널 조사 자료를 통해 추출된 재무적 요인을 바탕으로 간접조사 방식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이는 재무자료 공개를 꺼리는 국내 기업들의 속성에 따른 불가피한 연구방법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한계로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재무적 속성 관련 퇴직연금 도입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재무자료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직접 수집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에 영향을 주는 재무요인을 분석해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진행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 규모나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항목에서 산출되는 재무비율을 활용해 퇴직연금 도입의사와의 관련성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대 유도를 위한 정부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기업의 재무항목 중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총액이 클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2,13,14,18,20].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자산, 부채, 매출, 이익 등의 재무요인과 퇴직연금제도 도입의사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자산, 부채 및 이익의 총액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자원·신용이 낮고 각 기업의 규모 및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법상의 기업규모 분류기준인 자산과 매출액은 총액을 사용하고, 부채와 이익부문은 재무비율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재무비율은 기업에 내재된 구조적이고 기본적인 경영추세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상이한 기업규모를 가진 기업의 상호평가가 가능한 재무속성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업규모 및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재무비율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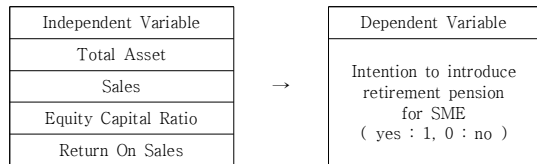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2018년 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 업체 수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약 660만개이고 이중 서울·인천·경기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는 전체의 51.05%인 339만개이다[21].

본 연구는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편의표본 방식으로 추출한 300개 중소기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말 실시한 설문결과를 spss(ver.21)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대표자의 3년 이내 퇴직연금제도 도입의사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는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노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노동조합 설립이 미미한 중소기업의 실상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의사가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종속변수는 명목적도를 사용하였으며, 3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대표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1,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분류하였다.

독립변수인 기업의 재무항목 중 자산과 매출액은 총액을 사용하고 부채와 이익부분은 재무비율을 활용하였다. 재무비율의 유형은 크게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유동성, 활동성 등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 관련해서는 안전성 비율인 자기자본비율을, 이익 관련해서는 수익성 비율인 매출액순이익률을 독립변수로 선택 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변수 값과 변수에 대한 설명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Operational Definition of Study Variables

Category	Variable Name	Operational Definition
Dependent Variable	Intention to Introduce retirement pension	CEO's Intention to Introduce Retirement Pension System within 3 years (1 : Yes, 0 : No)
Independent Variable	Total Asset	Total Assets of the Enterprise
	Sales	Total Sales of the Enterprise
	Equity Capital Ratio	Equity Capital / Total Asset
	Return On Sales	Net Profit / Sales

4. 실증분석

4.1 표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대상 중소기업의 총자산, 매출액, 종업원 수로 분류한 설문 대상기업의 현황은 Table 4와 같다.

본 설문 대상 중소기업 300개 중 46.3%인 139개 중소기업 대표가 3년 내 퇴직연금 도입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53.7%인 161개 중소기업 대표는 3년 내 퇴직연금 도입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Total Asset, Sales, Employee size From sample

(Unit : 100 million won, people)

Category	Total Asset	Sales	Employee size
less than 10	113	57	218
10 - 49	130	142	73
50 - 100	36	61	7
more than 100	21	40	2

현행법 상 퇴직연금제도 미 도입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이 없고 노조설립이 미미한 중소기업의 실상을 고려 시 본 연구대상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의사는 대표의 자발적 의사만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퇴직

연금 도입의사 관련 설문결과로 볼 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의사는 현재 긍정·부정 의견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 독립변수인 총자산과 매출액의 경우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기업의 총자산 평균은 32.5억 원, 매출액 평균은 55억 원 이었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From Sample

(Unit : 100 million won, %)

Category	Mean			standard deviation
	Total(c)	Yes(a)	No(b)	
Total Asset	32.6	40.1	26.1	47.6
Sales	56.3	75.4	39.8	82.0
Equity Capital Ratio	36.8	33.4	39.8	37.7
Return On Sales	0.5	3.2	△1.8	26.1

Total(c) : yes(a) + no(b)

yes(a) : Intention to introduce retirement pension within 3 years

no (b) : Not intention to introduce retirement pension within 3 years

설문기업 중 3년 이내 퇴직연금제도 도입의사를 가진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총자산과 매출액 평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하 3년 이내 퇴직연금제도 도입의사를 가진 중소기업을 'yes 기업', 도입의사가 없는 중소기업을 'no 기업'으로 칭함). 부채 관련 재무비율인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설문기업 자기자본비율 평균은 36.8%였고 이 중 yes 기업이 no 기업보다 자기자본비율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 관련 재무비율인 매출액순이익률 평균은 0.5%이었고, yes 기업이 no 기업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로 볼 때, 설문기업 중 퇴직연금제도를 3년 이내에 도입하려는 의사를 가진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자기자본비율을 제외한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ver.21)을 활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다중공선성 확인 및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들 간 연관성 및 상호의존성을 확인하는 통계분석으로 변수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Table 6에서 나타나고 있는 본 연구 독립변수 간 피어슨상관계수는 총자산-매출액(.639), 총자산-자기자본비율(-.094), 총자산-매출액순이익률(-.114), 매출액-자기자본비율(.011), 매출액-매출액순이익률(.017), 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014) 등으로 확인되어 상관관계수가 .75이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Table 6. Correlation & Multicollinearity Analysis Results

	1	2	3	4	Tolerance	VIF
1	1				.566	1.766
2	.639**	1			.578	1.729
3	-.094	.011	1		.983	1.018
4	-.114*	.017	.014	1	.973	1.028

1.Total Asset, 2.Sales, 3.Equity Capital Ratio, 4. Return On Sales
* p<.05, ** p<.01

4.2 이항로지스틱 분석결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차 한계(tolerance) 및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을 살펴보았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의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이상이며 VIF값 또한 모두 10미만으로 본 연구 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명목척도인 퇴직연금 도입의사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3년 내 퇴직연금제도 도입의사 있음을 1, 도입의사 없음을 0으로 구분한 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7.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B	S.E.	Wald	df	p-value	Exp(B)
Asset	.000	.000	.023	1	.880	1.000
Sales	.000	.000	7.811	1	.005	1.000
Equity Capital Ratio	-1.240	.490	6.409	1	.011	.289
Return On Sales	4.277	2.153	3.945	1	.047	71.988
Constant	-.220	.231	.908	1	.341	.803

chi-squared(df)=28.201(4), p-value=.000

-2 Log likelihood=396.073a, Cox&Snell's R²=0.090, Nagelkerke's R²=0.120

chi-squared(df)=5.251(8), p-value of Hosmer-Lemeshow test=.730

Table 7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전체 테스트 상 유의확률은 .000으로 .05보다 작아서 본 연구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Hosmer와 Lemeshow 검정 값은 모형의 예측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클 때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Hosmer와 Lemeshow 검정 값 유의확률은 .730으로 .05보다 커서 모형의 예측력이 있다 할 것이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매출액(p=.005)과 자기자본비율(p=.011), 매출액순이익률(p=.047)이 유의확률

.05미만으로 종속변수인 퇴직연금제도 도입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총자산(p=.880)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Exp(B)값을 보면, 매출액의 Exp(B) 값은 1로서, 이는 매출액 1단위가 증가하더라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 Exp(B)값은 .289로서 자기자본비율 1단위 증가 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는 3.46배(1/.289=3.46) 감소하는 것으로, 매출액순이익률은 1단위 증가 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가 71.9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의사에 유의한 재무요인은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이며, 이중 매출액은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자본비율은 음(-)의 영향, 매출액순이익률은 양(+)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이다.

4.3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

본 연구 결과 자기자본비율(음의 영향) 및 매출액순이익률(양의 영향)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총자산은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출액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총자산, 매출액, 부채 및 이익규모가 클수록 퇴직연금 도입의사가 높다고 하였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은 낮을수록(=부채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순이익률은 높을수록(=이익규모가 클수록) 퇴직연금 도입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져 유사하면서도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는 기업 규모,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결과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Table 8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간접조사 방식을 통해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재무요인이 자산, 매출, 부채, 이익 규모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직접조사 방식을 통해 재무제표 및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퇴직연금 도입에 영향을 주는 재무 요인임을 규명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인사담당자가 아닌 대표자에게 직접 설문방식으로 수집한 재무항목 및 재무항목에서 추출한 재무비율을 분석에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할 것이다.

Table 8. Previous Studies vs This study

Category	Previous Study	This Study
Company Size	Big	Small & Medium
Survey Target	HR Manager	CEO
Data Extraction	Indirect	Direct
Survey Items	Financial Statement	Financial Statement & Financial Ratio
Result	Asset & Debt & Sales & Net Profit $\uparrow \Rightarrow$ Intention to introduce retirement pension \uparrow	Stability Ratio \downarrow & Profitability Ratio $\uparrow \Rightarrow$ Intention to introduce retirement pension \uparrow

4.4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 발생 요인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의 차이 발생요인은 대상 기업 규모의 차이 및 재무제표 신뢰성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선행연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재무적 속성에 따른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도입의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중소기업 재무자료의 신뢰성 저하는 중소기업 재무제표와 퇴직연금 도입 관련 연관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윤명진(2018)은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퇴직연금과 중소기업 재무성과 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게 나타난 사유를 중소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 부족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중소기업 재무제표는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22].

이와 다르게, 대기업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 재무자료는 외부감사나 회계자료 공시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재무자료 신뢰성 차이가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 차이를 발생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5. 결론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내 상황 속에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적 노후보장체계 중 하나인 퇴직연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

입 유도를 위한 효과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총자산,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재무요인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후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재무적 요인은 매출액순이익률(양의 영향)과 자기자본비율(음의 영향)이며, 총자산과 매출액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유도를 위한 금융 지원 지원 확대나 세액 감면 같은 인센티브제도 실시 시 매출액순이익률이 높거나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실시한다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적인 정부정책 실시를 통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노후소득 준비가 미흡한 국민들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의 재직 중 임금 및 복지의 차이가 퇴직이후 노후소득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인 퇴직연금 도입 유도 관련 정책기준을 매출액순이익률 및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재무비율 측면으로 정책기준의 다변화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퇴직연금 도입관련 재무요인으로 사용한 총자산, 매출액, 부채, 이익과 같은 총액기준 보다는 개별기업의 상황을 반영하고 상호 비교가 수월한 재무비율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사업체 패널 조사 자료와 같이 대기업 재무자료를 간접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재무자료를 설문방식을 통해 직접 수집하여 분석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편의 표본 방식으로 추출함으로써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기업의 내부정보 특히 재무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속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전체 중소기업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선정 및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중소기업 대표자의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재무요인만을 분석함으로써 비 재무요인의 영향 분석을 제외하였다. 대표자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중소기업의 비 재무요인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 시 향후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재무요인과 비 재무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퇴직연금 도입 관련 중소기업 연구 자료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제 인구고령화는 한국에게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현상이며 노후보장 체계를 든든히 구축하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이면서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도입은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필수 수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사결정에 어떠한 요소가 중요한지 규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Joo. (2018).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the Choice of Types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Employees of the Company*.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2] J. H. Ban. (2005). An Analysis of Corporate An Analysis of Corporate Preference for Retirement Pension. *Monthly Labor Review* 11, 49-53.
- [3]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0). *General Assembly Announcement of Retirement Pension Service Development Council*. Sejon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4] Y. C. Kim(2018) A study on Institutional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Old People's Welfare Poli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55-62.
DOI : 10.14400/JDC.2018.16.1.055
- [5]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Special Estimation of Future Populatio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6] K. W. Jeon. (2020.11.23). 11 Months of Natural Population Decrease. *Maeil Business Newspaper*.
- [7] J. I Choi & C.Y Ahn. (2015). The necessity of developing various Convergence financial service in preparation for the ag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4), 137-146.
DOI : 10.14400/JDC.2015.13.4.137
- [8] S. K. Kim. (2019). The Effects of Basic Income Security on Poverty Elimination and Life Independence Income Security Polic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77-88.
DOI : 10.14400/JDC.2019.7.5.077
- [9] National Pension Service. (2020). *National Pension Information*. Jeonju. National Pension Service.
- [10] J. S. KO. (2016). *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in Korea : Focusing on small business*. doctoral dissertation. Jeonjoo University Graduate School. Jeonjoo.
- [1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8) *Retirement Benefit System Work Manual*. Sejon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12] M. Stone. (1987). A Financing Explanation for Overfunded Pension Terminat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5(2).
DOI : 10.2307/2491021
- [13] Y. NA & D.Y Song. (2003). Characteristics of Firms` Electing Early Adoption of New Corporate Pension. *Korea Management Review*, 32(1), 119-147.
- [14] N. Alexander, K. Marina, Z. K. Aidai & S. Andrey(2018). Institutional Risks: General Principles of Influence on Pension Systems. In *Eurasian Business Perspectives*, 357-365.
- [15] M. Picconi. (2006). The Perils of Pensions : Does Pension Accounting Lead Investors and analysts Astray. *Accounting Review* 81(4)
DOI : 10.2308/accr.2006.81.4.925
- [16] W. J. Park, D. B. Lim & Y. I. Jeon(2011). Reasons for the Slow Adoption of Retirement Pension Plans by Korean Firms. *Korean Pension Association*, 1(2), 29-58.
- [17] D. H. Kim & K. S. Ryu(2011).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Firms in Selecting a Type of the Retirement Pension by Utilizing a Sequential Logit Model, 63(1). 53-75
- [18] J. R Francis. & A. Reiter. (1987). Determinants of Corporate Pension Funding Strateg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9(1).
DOI : 10.1016/0165-4101(87)90016-4.
- [19] M. A. Peteson. (1995). Cash Flow Variability and Firm's pension Choice A role for operating leverag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6(3).
DOI : 10.1016/0304-405x(94)90010-8
- [20] Dong-xu, ZHANG. (2017)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Choice Corporate Pension : A Framework and Empirical Study. *Business Management Journal*.
- [21]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0). *Basic Statistic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22] . J. Yoon.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Retirement Pension on Business Performances*,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Seoul.

정 영 훈(Yeong-Hoon Jeong) [장학원]



- 1996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2020년 2월 :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 컨설팅학과(석사)
- 2020년 2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일반 대학원 미래산업융복합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연금, 중소기업 정책

· E-Mail : ykjeong@shinbo.co.kr

김 형 수(Hyoung-Soo Kim) [장학원]



- 1995년 5월: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사회학 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일반 및 벤처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및 시니어비즈니스

· E-Mail : kimhs@hoseo.edu

안 은 주(Eun-Ju Ahn) [장학원]



- 2002년 8월 :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18년 2월 : 호서대학교 창업대학원 창업컨설팅트학과(경영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경영학, 시니어창업

· E-Mail : 97eunju@naver.com